



박소현의 섹.시.토크

“일할 거 많아?”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K의 등 뒤에서 남편의 은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거지만 하면 돼.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일 할 거 많으면 좀 도와주려고 그랬지.” K는 이 남자가 왜 이러나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아까부터 뭐 마려운 강아지마냥 왔다 갔다 하는 품이 어쩐지 수상쩍다 싶었다. 아나나 다들 설거지를 마치고 나자 남편은 슬며시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오랜만에 비디오방에나 갈까?” 예상치 못한 말에 K는 잠깐 놀랐다. 마지막에 가 본 게 언제였는지? 아마도 신혼 초였으니 어림잡자면 따져도 7년은 더 된 것 같다. 이제는 다들 DVD방이라고 부르는 걸 혼자 비디오방이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그동안 얼마나 출입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다. “갑자기 웬 비디오방? 보고 싶은 거 있을 빌려와서 집에서 봐.” “그냥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이왕이면 시원한 데서 보면 좋잖아.” “애들도 같이?”, “애들은 놔두고 가자. 다 컸는데 지들끼리 놀고 있으라고 해.” “답다고 꿈쩍도 안 하려는 남편이 웬일로 밤 외출을 다 하자고 하나 싶어 K는 서둘러 외출준비를 시작했다. 그런데 얽만 생각해도 다른 곳도 아닌 비디오방을 가자는 것이 심상치 않다. 이 생

각 저 생각을 하다보니 뭔가 짝이는 것이 있어 K는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답다고 안방, 애들 방 할 것 없이 죄다 활짝 열고 잠을 자다보니 아무래도 부부간의 잠자리가 소원해 질 수밖에 없었다.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눈치가 뵈어져 슬그머니 안방 문이라도 닫을라치면 “엄마, 더운데 문은 왜 닫아?”하고 물어올 정도이다. 그리고 보니 8월 들어서서



한번도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다. K가 느끼는 아쉬움을 남편 역시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도 비디오방이러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 아닌가? 집을 나서자마자 K는 남편의 팔짱부터 끼었다. 원지 연애하던 시절이 떠올라 벌써부터 흥분되기 시작했다. “뭘 볼 건데?” “생각해 둔 게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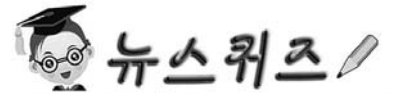
K는 속으로 너무 야한 걸 빌리면 이 나이에 좀 쑥스러운데 살다가도 결혼 7년차 부부가 액션물을 보면서 후끈 달아오르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애할 때야 물론 어떤 영화를 보느냐에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었다. 여러 번 비디오방을 다녀왔지만 거기서 본 영화 중 즐거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니까. 생각해 둔 게 있다더니 정말 남편은 들어서자

마자 금방 DVD 하나를 골라 카운터에 내밀었고 K는 음료수와 물 티슈가 든 가방을 들고 남편을 따라 정해진 룸으로 들어갔다. 옛날의 그 어둡고 은밀하던 비디오방 분위기와는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그나마 좀 허름한 곳으로 골라 들어온 남편의 센스에 박수를 쳐 주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영화가 중반을 넘기도 남

편은 소파에 편하게 누워 영화를 즐기느라 여념이 없다. 이따금 K를 향해 “재미지?”하고 물어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손 한번 잡아줄 생각을 안 한다. 일부러 가까이 누워도 보고 허벅지에 손을 올려도 봤지만 남편의 눈은 화면에 똑 빠져서 나올 생각이 없었다. 스틸러블인걸 알고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은근히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K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만 갔다. 2시간 뒤, 집으로 돌아오는 K의 얼굴은 뺨뺨은 표정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말았다. “당신 거기 왜 간 거야?” “왜 가긴, 영화 보러 갔지. 당신은 재미 없었어?” “재미는 무슨... 혼자 가지 나는 왜 데리고 가서 괜히 오며가며 귀찮게 만들어?” “날도 더운데 애들 데리고 고생한다 싶어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왜 화를 내?”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K를 쳐다보았다. 이 남자가 그 옛날 화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끈질기게 더듬어대기만 하던 그 남자가 맞는 거 싫어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런 말을 꺼내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 덕분에 잘 봤어. 다음에 또 가자. 대신 다음에는 내가 잘하는 영화 볼게야.” 혼자 씩씩거리며 앞서 걸어오면서 K는 오늘 따라 유난히 날이 더 덥다는 생각을 했다.

“갑자기 웬 비디오방? 애들도 같이?” “애들은 놔두고 가자!”

한 여름 밤의 꿈



78. 완도 출신으로 미국프로골프(PGA)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 선수의 인생이 드라마로 만들어집니다. 필리핀에서는 최근 이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탱크의 눈물’이라는 20부작 드라마의 제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사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감춰진 이야기들, 인간으로서 숨겨진 고뇌와 열정 등을 드라마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탱크’로 불리는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최경주 ②양두재 김 ③선동열 ④미של 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르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4일(음 7월 12일庚寅)

Table with 12 rows of horoscope information for different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including their respective animals and lucky/unlucky numbers.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학력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 인터넷이 뜨겁다. 매일이다시피 연예인의 학력 의혹이 불거지는 가 하면 순식간에 퍼지면서 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텔리트 안재모가 22일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학력이 ‘단국대 연극영화과 학사’로 잘못 소개됐다고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색어에 올랐다. 또 개그맨 임하룡도 각종 포털 사이트에 ‘한양대 연극영화과 학사’로 기재됐지만 졸업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급기야 임씨는 “1971년 입학한 뒤 졸업하지 못했고 1997년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검색어에 포함됐다. 김태희를 비롯해 이적, 안재환, 서경석 등 서울대 출신 연예인들 등 명문대 출신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남태희’도 눈길을 끌었다. 남태희는 최근 LG전자가 14가지 색상을 적용한 컬러플렉스 휴대전화 출시에 맞춰 선보인 에피소드 동영상에 출연해 색시

댄스를 선보인 학생을 일컫는 말. ‘남자 김태희’를 의미한다. 동영상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한 여성이 머리 카락을 휘날리며 LG전자 휴대전화 광고에 등장했던 김태희와 유사한 춤을 추다가 마지막에 가발을 벗고 남자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는 내용. 경남 거제도에 다니는 여자 남자에 대해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았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정 남자로 휴대전화 광고 동영상에 출연, LG전자 광고 모델인 김태희의 춤을 따라 추 '남자 김태희'라는 의미의 '남태희'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경남 거제도 2학년 김태형군.

끝 없는 ‘학력 위조’ 파문

Go board game problem titled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4회전'. Includes a board diagram with numbered stones and a list of moves for both sides.

Go board game problem titled '손따라 둔 약수 8보(154~170)'. Includes a board diagram and a list of moves for both sides.

Go board game problem titled '바둑소식'. Includes a board diagram and a list of moves for both sides.

English section titled '굿모닝 잉글리쉬 <977>'. Includes a dialogue about checking out of a room and a list of related phrases.

Japanese section titled '오하오우 니혼고 <977>'. Includes a dialogue about a reservation and a list of related phrases.

Chinese section titled '니하오 쑹구위 <167>'. Includes a dialogue about a business meeting and a list of related phrases.

Chinese section titled '한자 이야기 <594>'. Includes a story about a horse and a list of related phrases.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with a photo of a woman and child.